

# 2018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

## (주요정책부문)

2019. 1

금융위원회

# 1. 평가개요

## □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

- 평가대상 : 총 37개 관리과제 56개 성과지표
- 평가지표 : <sup>I</sup>계획수립의 적절성\*(30점), <sup>II</sup>계획대비 성과 달성도(50점), <sup>III</sup>포괄적인 정책효과성(20점)

\*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(10점),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(10점), 성과지표의 적절성(10점)

## I-1.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

측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획수립 단계에서 외국 사례·통계 현황 조사 및 이해관계자·전문가·현장 의견수렴 등 절차적 충실성을 확보했는지 여부</li> </ul>							
	<div> <div>㉑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</div> <div>㉒ 이해관계자,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실시 (공청회, 현장간담회 등)</div> </div>							
	<p>* 17년도 이전부터 진행해오던 정책과제의 경우 <b>상황변화가 없는 경우</b>에 한하여 <b>기존('18년 이전)에 실시한 것을</b> 실적으로 인정</p> <p>⇒ 상황변화로 새로운 조사·의견수렴이 필요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감점 요인</p>							
	<table> <tr> <th>판단근거</th><th>점수</th></tr> <tr> <td>- ㉑, ㉒ 모두를 실시했으며 - 사전조사의견수렴이 <b>충분히 계획수립에 반영</b>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</td><td>8~10점</td></tr> <tr> <td>- ㉑, ㉒ 모두를 실시했으나 - 형식적으로 시행되어 <b>계획수립에 실질적인 반영이 부족</b>하다고 판단되는 경우</td><td>4~7점</td></tr> <tr> <td>- ㉑, ㉒ 중 <b>하나라도 시행되지 않은 경우</b></td><td>1~3점</td></tr> </table>	판단근거	점수	- ㉑, ㉒ 모두를 실시했으며 - 사전조사의견수렴이 <b>충분히 계획수립에 반영</b>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	8~10점	- ㉑, ㉒ 모두를 실시했으나 - 형식적으로 시행되어 <b>계획수립에 실질적인 반영이 부족</b>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	4~7점	- ㉑, ㉒ 중 <b>하나라도 시행되지 않은 경우</b>
판단근거	점수							
- ㉑, ㉒ 모두를 실시했으며 - 사전조사의견수렴이 <b>충분히 계획수립에 반영</b>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	8~10점							
- ㉑, ㉒ 모두를 실시했으나 - 형식적으로 시행되어 <b>계획수립에 실질적인 반영이 부족</b>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	4~7점							
- ㉑, ㉒ 중 <b>하나라도 시행되지 않은 경우</b>	1~3점							

- **과제의 특성상 사례분석이 불가능**하거나 의견수렴이 **불필요**한 경우, 계획수립 과정 전반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여 점수부여

## I-2.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

측정방법

○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

※ 강제배분(상대평가) 지표

판단근거	배분비율	점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과제 간 「2018년도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시행계획」 상 과제추진계획(분기별)을 비교</li><li>- 추진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이행난이도가 적절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, 순위를 나열하여 상위 30% → 8~10점 중간 50% → 4~7점 하위 20% → 1~3점 부여</li></ul>	30%	8~10점
	50%	4~7점
	20%	1~3점

## I-3. 성과지표의 적절성

측정방법

○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

※ 강제배분(상대평가) 지표

판단근거	배분비율	점수
- 과제 간 「2018년도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시행계획」 상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비교	30%	8~10점
- 지표가 정책목표를 잘 대표하고 있는지 목표달성 난이도가 적절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, 순위를 나열하여 상위 30% → 8~10점 중간 50% → 4~7점 하위 20% → 1~3점 부여	50%	4~7점
	20%	1~3점

## II. 계획대비 성과 달성도

### II-1.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

측정방법

- 과제별 「2018년도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시행계획」 상 **추진계획**(분기별)의 **준수 여부**

판단근거	점수
-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에 수립한 추진계획에 따라 <b>모든 일정을 완료</b> 한 경우	<b>14~20점</b>
-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% 이상인 경우	<b>7~13점</b>
-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% 미만인 경우	<b>1~6점</b>
<b>[가점]</b> 3조항 이상의 법률 제·개정 완료	<b>+5점</b>
3조항 미만의 법률 제·개정 완료	<b>+3점</b>
시행령·규정 제·개정 완료	<b>+2점</b>
내부지침·기준 제·개정 완료	<b>+1점</b>

- 일정지연이 **외생적 요인**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시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평정

### II-2.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

측정방법

○ 「성과관리시행계획」 상 **성과목표 목표치 달성 여부**

- \* 성과지표가 2개 이상인 경우  
성과지표 목표 달성율은 여러 지표의 '평균치'로 계산
- \*\* 성과지표가 수치가 아닌 '000 방안 마련', '000 시행령 개정' 등 All or Nothing의 성격을 가진 경우 목표를 달성했으면 100% 달성하지 못했으면 기울인 노력을 토대로 달성율을 판단

판단근거	점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성과지표의 <b>목표치를 100% 이상 달성</b> 했으며</li> <li>- 목표치 달성 이후 모니터링·홍보활동, 법안통과를 위한 대국회활동, 하위규정 제·개정준비 등 <b>사후적인 관리 노력이 충실히 이루어진 경우</b></li> </ul>	<b>25~30점</b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성과지표의 <b>목표치를 100% 이상 달성</b> 했으나</li> <li>- 목표치 달성 이후 모니터링·홍보활동, 법안통과를 위한 대국회활동, 하위규정 제·개정준비 등 <b>사후적인 관리 노력이 부족하다 판단되는 경우</b></li> </ul>	<b>20~24점</b>
- 성과지표의 <b>목표치를 90% 이상 ~ 100% 미만</b> 달성	<b>16~19점</b>
- 성과지표의 <b>목표치를 90% 미만</b> 달성	<b>15점 이하</b>

○ 목표치 달성 실패가 **외생적 요인**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시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평정

### III. 포괄적인 정책 효과성

측정방법

○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지표 개선 및 정성적 정책효과 발생 여부

㉠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

㉡ 국민불편 해소,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

- ㉠ 성과지표로서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관리과제 추진으로 개선되는 계량화된 지표
- ㉡ 통계·수치 등으로 나타낼 수는 없는 기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

※ 강제배분(상대평가) 지표

판단근거	배분비율	점수
- ㉠, ㉡ 두 가지 실적을 <b>종합적으로 평가</b> 하고 순위를 나열하여 상위 30% → 14~20점 중간 50% → 7~13점 하위 20% → 1~6점 부여	30%	14~20점
	50%	7~13점
	20%	1~6점

## 2. 평가결과

### (1) 총 평

□ '18년도 총 14개 과(팀)의 37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,

○ 매우우수 1개(5%), 우수 6개(15%), 다소 우수 5개(15%), 보통 12개(30%), 다소 미흡 5개(15%), 미흡 6개(15%), 부진 2개(5%)로 나타남

- 우수 이상 과제는 '코스닥 시장을 통한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(IV-1-① 관리과제)', '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도입(IV-3-① 관리과제)' 등 7개 과제이며,

- 미흡 이하 과제는 '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(Ⅲ-3-① 관리과제)', '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제고 추진(IV-2-② 관리과제)' 등 8개인 것으로 평가됨

⇒ 미흡 이하 과제의 보완필요사항을 분석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·관리함으로써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

□ 총 37개 관리과제의 56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,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84%로

○ 47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, 9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

○ 성과 목표치 미달성 지표는 주로 법령 개정 사안으로, 국회 논의 지연 또는 규개위 심사지연, 추가 고려사항 발생\* 등이 주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

\* 금융 행정 전반의 개선방안을 권고하기 위해 구성된 '금융행정혁신위원회' (민간 위원으로 구성, 금융위와 독립적으로 운영)의 권고사항을 검토·반영

## (2) 주요성과

□ ‘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’, ‘금융업 진입장벽 완화’ 등 7개 과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체평가위원회의 좋은 평가를 받음

○ (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)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방안\* 단계적 도입으로 여신심사 과정을 선진화하는 데 기여하고,

\* 新DTI(총부채상환비율, Debt to Income), DSR(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, Debt Service Ratio)

-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(고정금리, 분할상환 비중 확대), 취약·연체 차주 지원방안 마련 등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

○ (역동적인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) 민간 중심의 성장지원펀드 조성을 위한 운영방안 마련(‘18.3.29일)

-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중소·벤처기업 M&A 등 회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마련 및 펀드규약 등 규제 완화

○ (금융업 진입장벽 완화) 「진입규제 개편방안(‘18.5.2)」을 통해 은행, 보험, 금투 등 전업권에 걸쳐 업권별 진입장벽 완화방안 마련

- 특히, 지속적인 국회 협의 및 설득노력을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산업자본에 한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%까지 보유토록 하는 특례법이 국회통과

○ (코스닥 시장을 통한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) 상장요건 개선으로 코스닥 시장 개설 이래 최초로 코스닥 상장기업 1,300개사 도달

○ (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도입)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융그룹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, 금융회사 私금고화 방지를 위한 ‘기본 틀’ 마련

○ (PEF의 경쟁력 강화) “경영참여형(PEF)”과 “전문투자형(헤지펀드)”으로 이원화된 “운용규제 일원화” 방안 발표

⇒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관련규제를 과감히 완화

○ (중금리대출 활성화) 사잇돌 대출 공급추이 및 지속되는 수요를 감안하여 공급한도 2조원 확대

### (3) 개선·보완 사항

- ‘금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’, ‘금융중심지 정책 지속 추진’ 등 8개 과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개선·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
- (금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) 베트남 중앙은행 등 6개국·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국제기구 및 금융당국간 금융정책·감독 협력 및 정보공유 기반을 구축하였으나,
  - 해외에서 개최하는 금융협력포럼의 경우 치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현지 당국의 소극적인 자세 등 변수로 인해 계획대로 개최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
- (금융중심지 정책 지속추진) 부산 지역의 해양·파생특화 금융중심지 육성 지원을 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자 부산대·한국해양대에 해양·파생금융 특화 석사과정을 개설
  - 설립 초기 인지도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 부산대 파생금융 특화 석사과정 입학생이 정원에 미달하여 성과지표상 목표 87.5% 달성
- (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) 관계형 금융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영업규제 합리화하는 신흥법 개정안을 마련코자 하였으나,
  - 관계기관(신흥 등) 의견조회 및 내부검토 과정에서 “사회적 경제조직”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법체계상 문제점이 제기되어 재검토 중인 것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추정
- (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) ‘18년중 여당 지도부,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실, 정무위 행정실 등 대상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및 제정 필요성을 38회 설명하였으나(성과지표 초과달성),
  -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 등 설득 노력 지속 필요



○ (바젤규제 도입 등의 차질없는 준비) 바젤3 규제 개편안 시행 준비를 위해 감독당국, 은행, 은행지주 리스크 담당자로 구성된 T/F 운영(4월~8월)

- 다만, 주요국에서 도입일정이 미뤄짐에 따라\* 은행업감독규정개정이 늦어진 점이 낮게 평가받았을 것으로 추정

\* 바젤위원회는 '19.1월부터 동규제를 도입키로 했으나, 주요국에서 도입 일정이 지연

\* (미국) '20.1월 G-SIB에 우선시행, (호주) '19.1월부터 시행, (EU) 도입일정 미정

○ (코스닥 시장의 독립성 제고) 코스닥시장 위원장과 본부장을 분리하고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 구성 및 권한을 확대

- 다만,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 노력필요

○ (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편의성 제고) 전동휠체어 포럼 출시, 지체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절차 간소화 등 추진

- 보다 포괄적·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장애인·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대책 마련 필요

○ (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제고 추진) 펀드시장의 고착화된 관행을 타파하고 투자자 중심으로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판매 시장 내의 경쟁을 촉진하는 성과도 있었으나,

- 자본시장법령 개정이 외부 요인으로 지연되고,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는 사모펀드 시장과 달리 공모펀드 시장의 성장이 미미\*한 데 미흡원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

\* 공모펀드 수탁고: ('12년) 186.3조원 → ('15년) 213.8조원 → ('18년) 213.6조원

사모펀드 수탁고: ('12년) 121.3조원 → ('15년) 199.8조원 → ('18년) 330.7조원

#### (4) 평가결과 종합

관리과제명		자체평가결과 (평가등급명)
<b>전략목표 I :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한다.</b>		
I-1-①	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	매우우수
I-1-②	비소구 주택담보대출(유한책임대출) 확대	다소우수
I-2-①	리스크에 대한 점검, 대응체계 강화	보통
I-2-②	예금보험제도 개선	보통
I-2-③	상시 기업 구조조정 추진	보통
I-3-①	혁신기업 창업촉진 지원	보통
I-3-②	역동적인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	우수
I-3-③	중소조선사 및 구조조정 협력업체 지원	보통
I-3-④	기술금융 활성화	다소미흡
I-4-①	금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	미흡
I-4-②	금융중심지 정책 지속 추진	부진
<b>전략목표 II :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.</b>		
II-1-①	금융업 진입장벽 완화	우수
II-1-②	새로운 금융업 출현촉진	다소미흡
II-2-①	ICT 기업과의 부수.겸영.위탁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	보통
II-2-②	바젤규제 도입 등의 차질없는 준비	미흡
II-3-①	혁신기술 발전에 대한 보험업의 선제적 대응강화	다소미흡
II-3-②	자동차보험 소비자 권익 강화	보통
II-3-③	IFRS17 도입시스템 구축	다소우수
II-4-①	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관련 자금중개기능 강화	보통
II-4-②	PEF의 경쟁력 강화	우수
II-5-①	지역금융 활성화 등을 위한 저축은행 영업 규제 합리화	보통
II-5-②	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	미흡

전략목표 Ⅲ : 서민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.		
Ⅲ-1-①	중금리대출 활성화	우수
Ⅲ-1-②	효과적인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	다소우수
Ⅲ-2-①	자영업자, 청년·대학생 등 취약채무자의 보호 강화	다소우수
Ⅲ-2-②	최고금리 인하 시행 및 고금리대출 이용여건 개선	다소우수
Ⅲ-2-③	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	보통
Ⅲ-3-①	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	부진
Ⅲ-3-②	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편의성 제고	미흡
전략목표 Ⅳ :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한다.		
Ⅳ-1-①	코스닥 시장을 통한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	우수
Ⅳ-1-②	코스닥시장의 독립성제고	미흡
Ⅳ-1-③	스튜어드십 코드 확산	다소미흡
Ⅳ-2-①	ISA 제도개선	다소미흡
Ⅳ-2-②	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제고 추진	미흡
Ⅳ-3-①	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도입	우수
Ⅳ-3-②	기업회계의 국제적 신뢰 제고	보통
Ⅳ-3-③	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	보통